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 1채널비디오.

갤러리스케이프
오후 6~10시, 2층 창문 야간상영
(로렌 브린켓과 크레이그 월시의 작품)

6

삼성파출소

갤러리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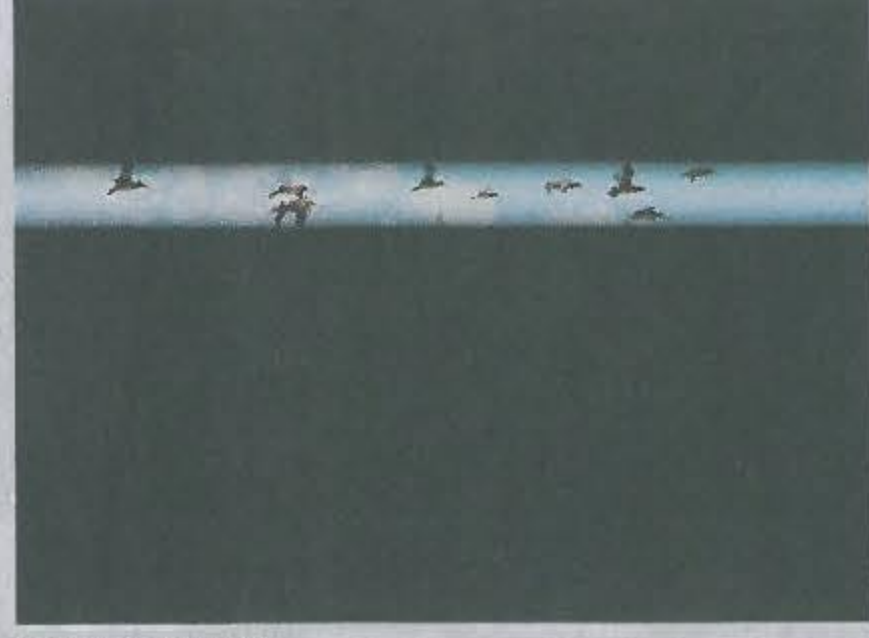
폴배, 왕공신,
헤이모 조베르니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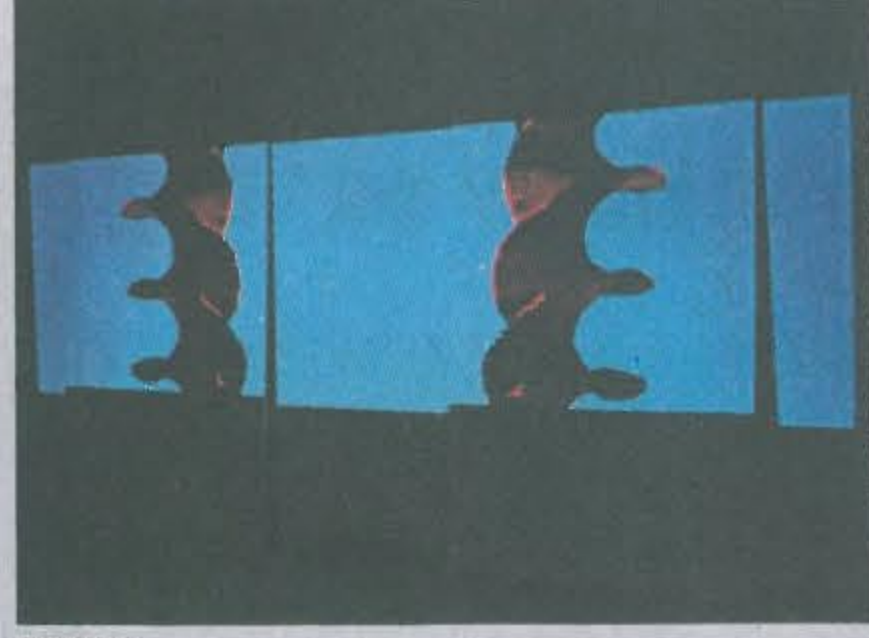
로렌 브린켓의
'This Time Tomorrow, Tempelhof', 1채널비디오 등.



데렉 크랙클러의
'Littoral', 1채널비디오-버티컬-선풍기 등.



바버라 캠벨의
'close, close', 1채널 반응센서 비디오 등.



폴배의
'무제', 1채널비디오 등.

북촌 길

‘하늘땅바다’ 서울전 15명 참여
6개 전시장서 내달 23일까지

미술관, 갤러리가 밀집한 북촌 일대에 미디어아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미디어아트 작가 15명이 한꺼번에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지원·기획하는 기관인 호주의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이 전시는 지난 22일 아트선재센터와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오피스아트, 갤러리스케이프, 갤러리인 등 6곳에서 개막됐다. 관람객들은 전시공간을 옮겨 다니며 감상하는 와중에 북촌 골

목길을 느긋하게 산책할 수 있다.

한국의 김수자·심철웅·정연두를 비롯해 8개국 작가가 참여한 ‘하늘땅바다(LANDSEASKY)’전은 수평선·지평선을 소재로 실제 공간, 비디오 영상 속의 공간 등 공간성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탐구 결과를 보여준다. 수평선(지평선)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이지만 작가들은 갖가지 효과를 노리는 화면분할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해석

을 담아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낸다. 어떤 작가는 인간의 지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작가는 영상의 기술적 재구성·변형으로 실재와 환영의 문제를 드러낸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람과 국가를 가르는 높다란 벽으로 보여지기도, 인간 존재에 대한 명상적 사유나 사건의 환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기획에 단초를 준 작가이자 자연 풍경을 기하학적 추상으로 변형시킨 사진

작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안 디베츠(73)는 미디어아트사의 초기 걸작으로 평가받는 ‘수평선’ 연작을 통해 작가의 관점과 카메라의 각도 등에 따라 수평선이 얼마나 다른 공간적 효과를 드러내는지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에는 1971년작 ‘수평선’ 3점이 모두 나왔다.

김수자(57)는 나이지리아 알파 해변에서 본 수평선을 다룬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년)에서 하늘과 바다가 뒤집힌 수평선을 표현했다. 식민지 시기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해변이 지닌 잔혹한 역사를 담아낸 것이다. “내가 본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선이었다”는 그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알파 해변 수평선에 녹여냄으로써 관객의 인식 확장은 물론 장

소·풍경을 개념적으로 재탄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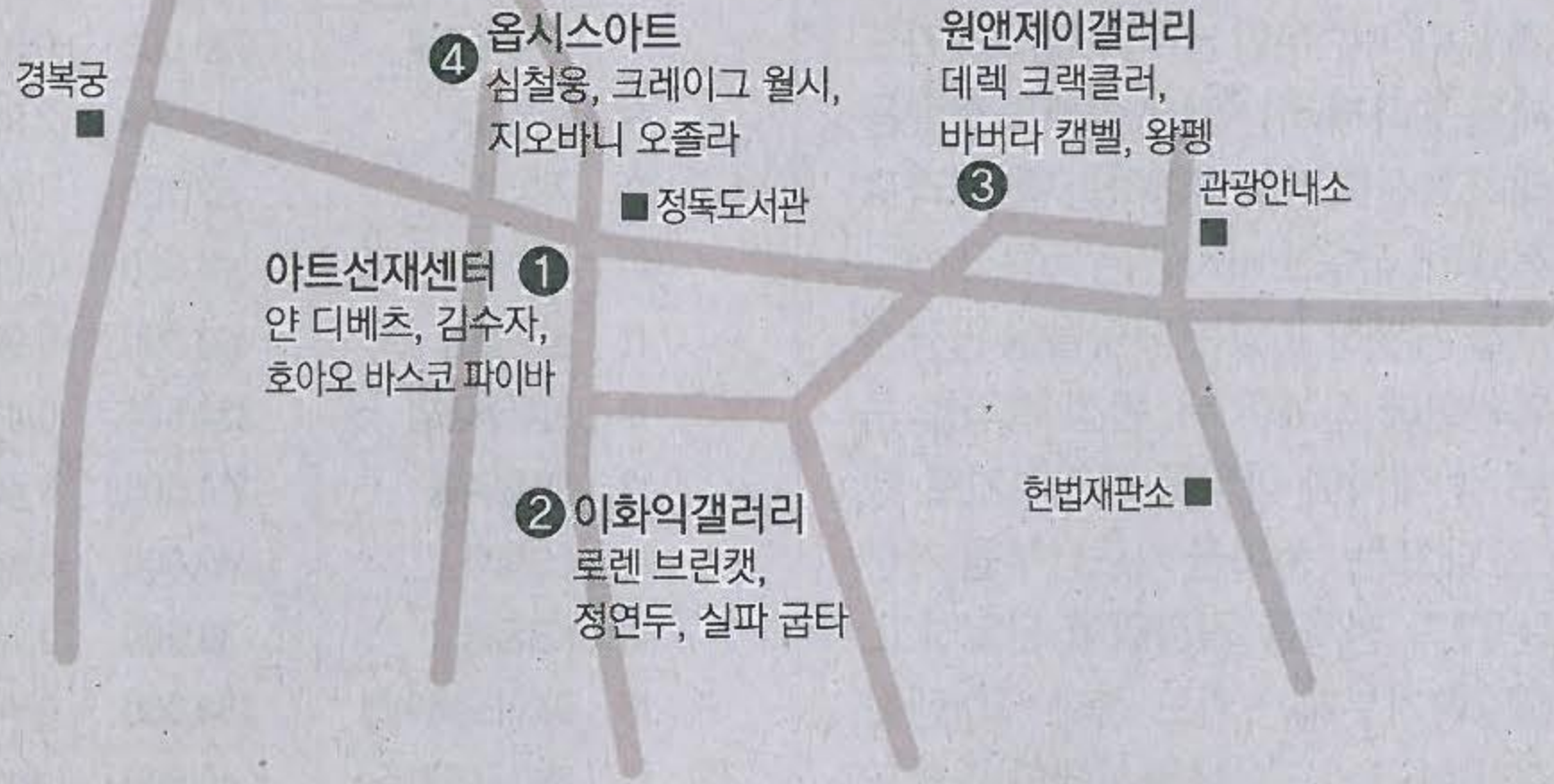
인도의 실파 굽타(38)는 100명의 인도인에게 각자 생각하는 인도 지도를 그리게 했다. 이들이 그린 모두 다른 형태의 지도를 통해 작가는 공간 묘사와 해석의 복잡성, 정치적 국경이나 민족국가의 정체성 등을 생각하게 만든다. 크레이그 월시(48)는 호주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4만년 전의 선돌 유적지인 무주루가의 일출·일몰을, 로렌 브린켓(34)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 공수작전 현장인 템펠호프공항 활주로의 퍼포먼스 영상을 담아 특정 공간에 퇴적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한다.

심철웅(56)은 영상 위쪽에는 거꾸로 된 도심 빌딩숲 이미지를, 아래쪽에는 한

강변의 물결 치는 강물을 한 화면에 담아 대비시킨 ‘또 하나의 강’을 내놓았고, 정연두(45)는 타인의 기억을 대변·해석하는 특유의 2채널 작품 ‘수공기억’ 연작의 하나인 ‘수공기억-영과 육의 갈림길에서’(2008년)를 선보인다.

전시장 사정상 6개 공간으로 나뉜 전시에 대해 기획자인 MAAP 디렉터 김 매이첸은 “오히려 흥미로운 대안이 나왔다”며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걸어 이동하는 거리가 전시의 연장선장에 놓이게 돼 관람객의 사유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늘땅바다’전은 서울에 이어 중국 상하이(4~7월), 호주 브리즈번(9~11월)으로 순회한다. 3월23일까지.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8개국 미디어 아트를 만난다

경향신문
2014. 2. 25
국제갤러리(주)